

21세기의 인간상은
은혜 인간이다.

은혜 인간

Homo Gratia

KIM CHUL

은혜 인간

Homo Gratia

차례

	소개의 글	3
	들어가는 말	8
	은혜 인간 DNA	
01	자신이 되라	15
02	덮어 주라	20
03	먼저 하도록 두라	30
04	자녀이니 자녀다워지라	42
05	베푸는 자로 살라	56
06	받은 은혜를 주는 은혜로 은혜 되게 하며 살라	65
07	해결을 신뢰하지 말고 은혜를 믿으며 살라	72
08	성경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라	80
09	자유로 진리의 종노릇하게 살라	90
10	보이는 것이 참담할 땐 들리는 복음으로 살라	101
11	날씨 보고 결정하지 말고 날씨 속으로 들어가 살라	111
12	정금이니 정금 인생처럼 살라	125
13	행함으로 살지 말고 됨으로 살라	134
	후기	144

소개의 글

은혜 인간 Homo Gra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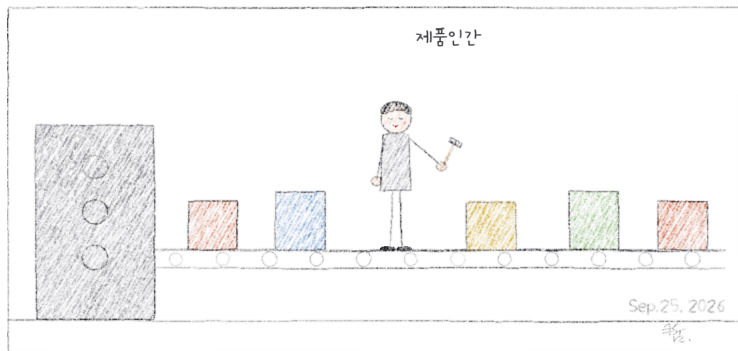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다. 생각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에 동물과는 다른 삶 곧 인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이다. 인간을 가만 살펴보니까 이리이러하더라 하면서 붙인 명칭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형식으로든 그저 인간으로 살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인간에 대한 사실이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상을 홍익인간이라 한다. 한민족의 영혼 속에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새겨진 인간 명칭이다.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닌 특질을 토대로 이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인간에 대한 꿈과 이상을 그 이름에 집약해 놓은 것이다. 오늘에 존재하고, 오늘을 산다고 해서 내가 홍익인간이 되지 않는다.

홍익인간의 인간상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고, 추구하고, 애써야지만 홍익인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학명이 아닌 영혼의 이름 곧 영명이다. 이 영명은 한 인간의 삶의 목적과 사는 방식을 결정한다.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제작하고 생산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영명이 없는 학명 호모 파베르만을 지닌 인간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없다.

그가 성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인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는 바가 아닌, 자신을 되어 가게 하는 인간상이 없는 사람은 도구와 생산품과 다를 것이 없는 도구인간이요 제품인간일 뿐이다. 성공의 결과물은 있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제껏 그래 왔듯이 21세기를 사는 인간에게 새로운 학명이 붙여질 것이다. 또한 바람과 이상을 품고 학명에만 고착되어 사는 인간 무리를 향해 새로운 인간상을 요청하는 소리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 명칭에 대한 소란 속에서 21세기는 **Homo Gratia** 곧 은혜 인간의 시대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

기나긴 인간 역사의 사이클은 바야흐로 인간의 학명과 영명이 하나로 귀결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은혜 종 **Grace-species**이다. 수태에서 출생, 출생에서 양육과정, 성장에서 죽음까지 인간은 은혜를 요구하고, 수용하고, 생각하고, 사용하며 산다.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길 역시 은혜 인간의 길이다. 21세기의 인간상은 은혜 인간이다. 인간의 연약함, 약함, 변질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간과하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강하고, 선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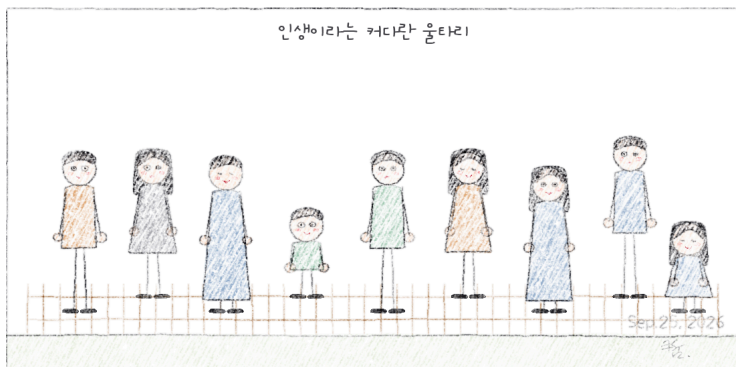
인간은 원초적으로,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영적으로 은혜 인간이며, 은혜 인간으로 살아야만 성공적인 행복자로 살 수 있는 존재이다. 21세기는 은혜 인간들의 시대이다. 인간을 은혜의 종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지적 훈련이 된 자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이다.

또한 은혜 인간을 자신의 영혼의 명칭이요 목적하는
인간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어 가며, 은혜를 실천하는
인간들의 시대이다.

들어가는 말

은혜 인간 Homo Gratia & 은혜 족속 Grace Clan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영혼과 마음 전체가 악인 사람도 없다. 정도의 차이이지 모든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섞여 있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순도 100%인 존재는 없다. 이러하다 보니 인생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간다.



특별히 그 사회나 문화의 규범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선량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나는 완전히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주로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악한 사람들’을 법에 의거하여 혹은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 처벌한다.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에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롬3:10)’라는 성경의 인간을 향한 판결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판결이 때와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공식적인 결판이 내려졌고 기록되기까지 했다’

유대인들 중에도 악한이 있다. 그러나 이방족속을 대비하여 볼 때 유대인 족속은 택함 받은 민족이요 의로운 민족이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민족도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천명한다. 역시 확실한 죄인들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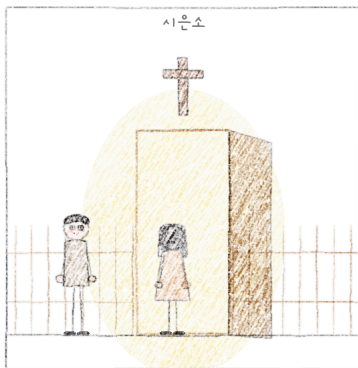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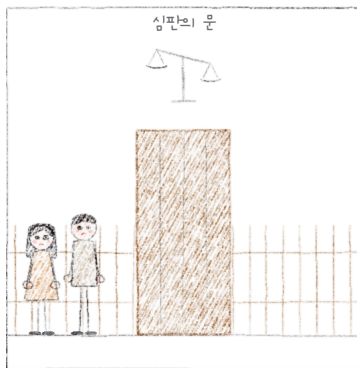
유대공동체라는 특별히 마련된 대형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생각하며 살아오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도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그 준거이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계심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가 바울 사도의 논증의 핵심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의와 덕과 선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령
중앙을 꿰뚫는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과연 무얼 나의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을
벗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왕은 자신이 죄를 행하는
자일뿐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한다
(시51:3-5). 하나님 앞에서 청년 이사야는 밝히 드러나는
자신과 민족의 부정함에 죽음을 경험하였다(사6:5). 자신
앞에 현실로 다가온 하나님의 계심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오로지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눅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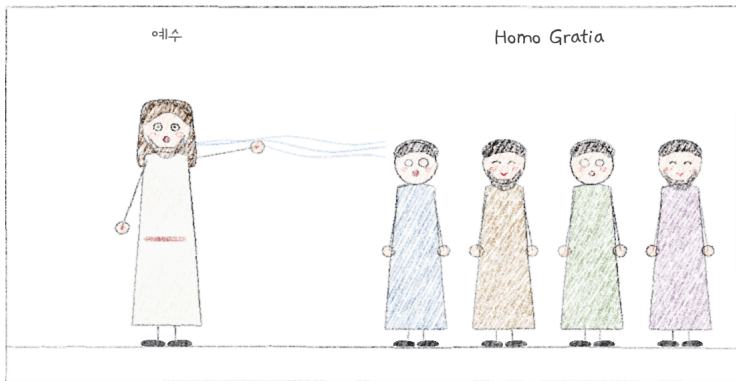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모든 인생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결국이다. 사도 바울은 커다란 울타리에 흩어져 분포해 있는 온갖 종류의 인생들에게 좁은 문 하나, 그들 모두가 결국 지나가야 할 양의 문 하나를 사명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양의 문은 예수요 또한 하나님의 판결의 자리이다. 원래적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그 문은 심판의 문이요 멸망의 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인해 그 문은 시온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자리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함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구원 계획에 수혜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와 처벌을 자신에게 부으셨고, 아들 예수는 그 잔을 모두 비우셨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당신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진리로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세상을 향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Homo Gratia’! 은혜로 살게 된 ‘은혜 인간’이 된 것이다.



Homo Gratia는 각 시대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족속을 이루고 살아간다. 아직 은혜 받은 자들의 본향인 저 천국에 입성하진 못했지만, 이미 은혜 인간들은 ‘은혜 족속 Grace Clan’을 형성하여 하늘의 법 곧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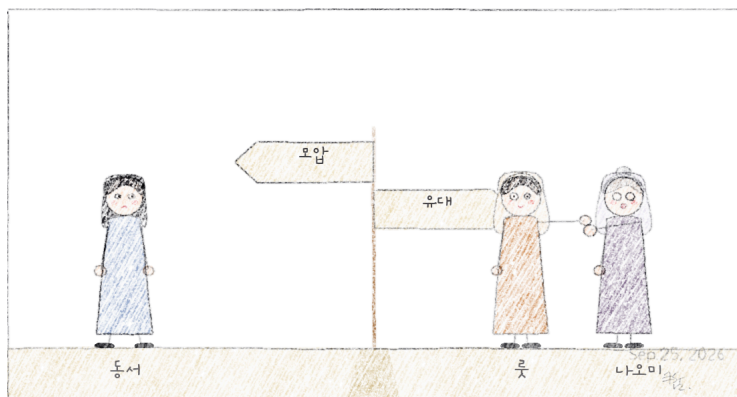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 곧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서 은혜 족속의 존재양식을 정해
주신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20:23)”.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 받은 은혜
인간들은 이제 용서하는 은혜를 행함으로 받은 은혜를
전달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이다. 은혜
족속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생각, 행동, 결정의 중심으로 삼는
자들이다. 결국 은혜 인간은 은혜 받았음에 세상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족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은 은혜 인간이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대망한다.

은혜 인간 DNA 자신이 되라

룻은 모압 사람이다. 이주해 온 히브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다. 다시 모압 사람이다. 지금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결심을 전달한다. “이제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 살도록 해라.” 이에 룻은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다 죽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신,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 이야기 모두 틀린 것이 아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롯은 또한 본인의 결연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롯의 결정이다. 민족적으로 롯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방인이다. 히브리 공동체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한 여인의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버거운 인생살이이다. 롯은 여성이다. 여성으로 홀로 산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에 불확실과 두려움을 더하는 설상가상의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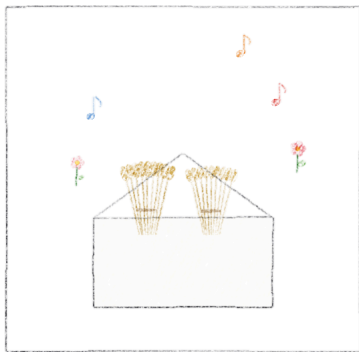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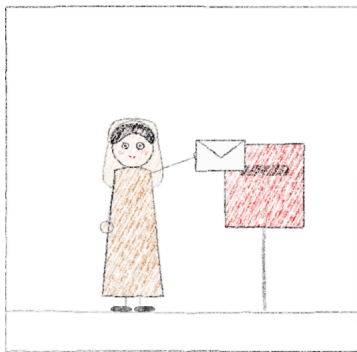
사려 깊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그저 자유롭게
이 모든 곤란의 굴레를 벗고 그녀가 근원한 곳, 시나브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룻의 손에
들려진 돌을 놓아야 할 자리이다. 그러나 룻은 그 판에
아예 돌을 던진다.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시작의
결정이다. 포기의 표현이 아니라 결단의 행동이다.

모압과 유대, 사별과 재혼, 시어머니와 떠나는 동서
사이에 룻이 있다. 모압의 문화양식도 생존 시의 남편의
이끌어 줌도 시어머니의 조언도 지금 이 상황,
이 순간만큼은 룻에게 무용지물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 아니 이미 되어 있다. 룻으로 룻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연약한 아낙에서 영적인 여인으로
성숙하는 순간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의존지향적인
삶의 태도가 책임감으로 일어난 독립적인 삶의 주체가
되는 변화점이다.

인생은 누구나 룻이 경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피할
수도 있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 순간 자체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룻이 돼야
한다.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

바로 거기에서 인생 현장이 쓰여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고백되어진다. 자신이 자신으로 결정한 그 결정으로
살면 된다.

곤란은 있어도 흔들림은 없다. 쓰러짐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함은 없다. 물질의 부족은 있어도 의미와 보람의
부족은 없다. 오해와 편견은 있을지언정 그것들의 증거는
없다.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 연유로 어려운 인생이
진행되고 있지만,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인생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현실로 은혜 인간의 삶은 감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은혜는 수령인이 분명할 때 전달되어진다. 내 삶의
결정에 내 전심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 냄으로 그 편지를 미리 보내어
놓는 것이다. 시간이 적당히 흐른 후에 그 결정의
열매들과 성취들이 봉투 안에서 꿈처럼 노래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족속들의 삶의 운영방식이다.

은혜 인간 DNA

똥어 주라

노아는 시대의 의인이었다(창6:9).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귀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자신이 경작하여 만든 포도주에 대취하여 알몸으로 누워 있는 꼴을 당시 온 인류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아들에게 보이는 추태의 주인공이 된다.

우선 노아가 취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자면, 노아가 마신 것은 포도주였다. 포도주는 당연히 포도로 만들어진단다. 포도는 땅으로부터 난다. 노아에게 있어서 토지는 역사 박물관과도 같았다. 그 박물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저주의 관 그리고 죽음의 관이다.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창3:17). 땅은 가만 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

인간이 섭취할 채소는 땅과 한판 씨름을 벌인 뒤에나 얻을 수 있게 되었다(창3:18).

이런 땅에서 포도가 풍성히 생산되었다. 이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수고를 자축할 수 있는 이유를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땅을 바라볼 때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 그대로가 아니다. 노아의 동시대 인간들의 시체들이 섞여 있는 죽음의 땅이 된 것이다.

그 땅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먹은 포도가 생산된 것이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의 땅 위에서, 그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자신의 결국을 먹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노아가 농사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땅의 사람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Noah, a man of the soil, proceeded to plant a vineyard(창9:20)’라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는 죽음의 땅 위에 있는 산 자이다. 사는 동안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이다.



포도를 수확하고 축하하려고 포도주를 마셨는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심정 때문에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아는 인간의 결국 곧 죽음을 동료로 두고 마셨다는 것이다. 취한 자로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노아의 상태는 산 자가 죽은 자와 가장 비슷해질 수 있는 모습이다. 적신, 모두 드러난 알몸이다.

죽은 자가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산 자 역시 죽음을 향해 치닫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사는 동안 인간은 죄인처럼 곧 죽을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죄성이 구체적인 죄가 되어 드러난다. 벗은 몸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생명의 땅 곧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인 것이다. 그 은혜는 덮어 주는 은혜Covering Grace이다.

하여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창9:21)’는 구절이다. 원래 인간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었다. 동산에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가리고 덮을 필요가 없었던 상태였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의식Consciousness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간의 의식이 어떤 이유에서든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을 때만 인간은 옷을 모두 벗어 버릴 수 있다. 인간은 덮개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하여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The garments of skin을 지어서 덮어 주셨다(창3:21).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두 가지 현실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리고 죄인들의 종말.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노아라는 인물 자체도 훌륭하고 선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죄성이 역사하는 아담의 후예였다. 이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게 봐 주셨다.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셨고(창6:6-7) 노아를 보시면서는 호의를 갖고
계셨다(창6:8).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은혜였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창6:8 KJV).

죄인 하나가 살아남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다. 그 은혜는
종게 봐 주고 덮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이지 제거와 정죄라는 심판밖에
기대할 수 없는 죄의 집합체이다. 인간의
수치스러운 심령을 덮어 줌으로 그를 죄의 종말에서
구해내는 것이 은혜이다. 이런 은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린 번제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정하게 준비된 제물들이 제단에서 향기로
드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하신다. “다시는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그들로
인해서라면 저주와 심판은 계속되어야만 하고 땅에
기경하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창8:21)”
대홍수의 생존자들 역시 살아 있음이 오직 은혜로
인함임을 절감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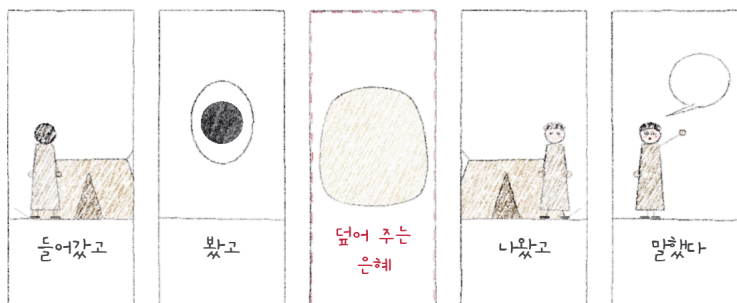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 이후에 시대의 의인 노아가
만취상태로 누워 있다. 이때 그의 장막에 아들 함이
들어간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 곧 한 인간의 수치를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노아가
깨어난 후에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뭐한 놈이 뭐한다고 함이 무슨 엄청난
죄를 졌다고 입에 담기도 뭐한 수치를 행한 노아가
자손들까지 싸잡아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함은 그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봤다.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이게 다이다. 혹여 아버지의
잘못을 그 당시 인류의 절반인 형제 두 명에게 나팔을
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다른 곳을 주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함은 들어갔고 봤고 나왔고 그리고 말했다. 중간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할 함의 행동이 빠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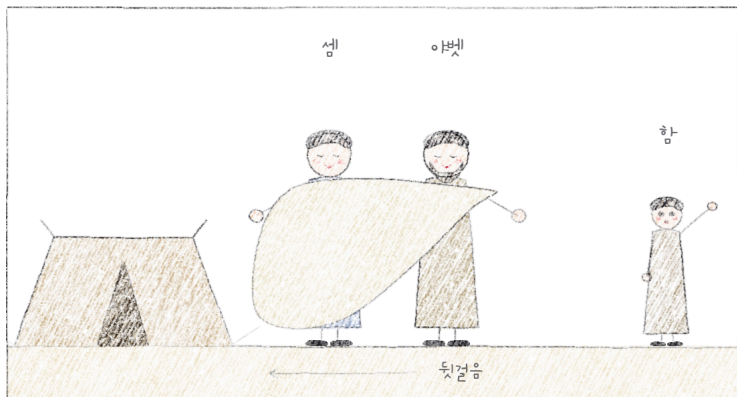
아버지 노아는 남들보다 그래도 나아서 그랬다손 치고 대홍수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오직 은혜임을 철저히 경험한 그가 다른 행동은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 덮어 주는 은혜를 행하지 않았다. 들어가서 봤다. 나와서 말하는 것까지도 괜찮았다. 그러나 그 중간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었어야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홍수 사건 생존자로서는 반드시 그랬어야 했다.



덮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덮어 주는 은혜를 행하며 살 때 자신에게 있는 덮어져야만 하는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은혜의 약속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노아의 저주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함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성경에서 함을 소개할 때 애당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창9:18).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창9:26). 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가나안 족속
Canaanite Clan은 함의 DNA를 유전 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덮어 주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산다. 용서와
 자비로 살리는 영성이 없는 자들이다. 경쟁과 싸움,
 성취와 성공, 자유와 문화... 이 모든 행위들에 능할지는
 모르지만 덮어 주는 은혜가 없기에 하나님의 족속은 될
 수가 없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제아무리 높고 많고 세다
 하더라도 그들은 은혜로 사는 족속들에게는 하위의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창9:25).

셈과 야벳은 함이 그냥 나온 그 장막으로 다시 들어간다.
 옷A garment을 가져간다. 세상 그 어떤 패션쇼에서도
 아직껏 연출해 내지 못한 우아함과 감동과 인간의
 고결함이 셈과 야벳의 움직임에서 완성된다: 이미 듣고
 알게 되었으나 아버지의 수치를 혹여 볼까 뒷걸음으로
 장막에 들어간다. 그들의 어깨에는 옷이 지워져 있다.
 인간의 주요 입력기관 즉 눈 코 귀를 수치의 방향에서
 돌이켜 오직 그 수치를 덮어 준다(창9:23).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둘에게 축복하되 특별히 형
 셈에게 놀라운 말을 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Lord God of Shem!**
 (창9:26)” 천지창조 이래로 계속되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하나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가나안에 속한 인간들은 함을 아버지 되게 하는 은혜
없는 인생을 살 것이고, 셈에게 속한 은혜 인간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늘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은혜는 인생을 동시에 두 번
살게 해 준다. 이 땅에 속하여 사나 하늘의 인생을
행하고 누린다.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으로 찬양 받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셈과 야벳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정신 그리고 행동이 동일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은 하나님께 없다. 은혜 인간은 덮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 받은 인생이다. 은혜 인간은 덮어 주는
은혜를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덮어 주는 은혜로 사는 은혜
인간으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 안에서 복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은혜 인간 DNA 먼저 하도록 두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다. 인생이 변화되는 이유는 인생을 보는 안목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관점이 변화되면 결정이 달라진다. 결정이 달라지면 인생의 질과 깊이와 방향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주위에서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 동일한 표현은 아니어도 비슷한 유형의 수많은 질문들이 그 뒤를 따른다. 잘못, 실수, 죄... 분명히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죄의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한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어서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행했는가? 그러면 너는 범죄자이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진리요 정의요 기준이며 율법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와 정의와 기준과 규칙들을 적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죄하고 처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모두가 적용자, 판단자, 처벌자인 동시에 그것들의 대상자들이다. 이것 또한 진리에 언제나 이르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이다.

이런 인간에게 도움이 주어졌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이다. 그분의 사역 중에 핵심은 첫째 인간을 살리되 참으로 살리는 생명의 역사와 둘째, 죄성을 지닌 인간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열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잘못과 실수와 죄를 분명히 범하는
악한 존재들이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저지른 죄도 분명한
죄이기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히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엄청난 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의 사람들을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인류의
메시야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대역사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랜 과정이며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으로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대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이다.
죄인이었을 때 인간을 사랑하사 그들을 오직 은혜로
자녀를 삼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악하고 또한 악한 존재인지라 계속되는 잘못과
실수와 죄로 새로운 피조물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도 오직 은혜로 해결하신다. 영원히
죽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 오신 후에도
그분의 은혜의 역사는 쉽다.

우리를 은혜로 더욱 온전하고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이가 입양된 것은
 구원의 은혜이다. 입양된 후에 아이가 훌륭한 부모를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은혜이다.



하여 성도라면 처음의 질문을 겸허히 받고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겠지만, 동시에 그 질타는 나를
 통과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잘못보다 더한 죄도 범할 수 있는 너였지만 은혜로 나의 자녀가 된 나의 사랑아! 지금 너는 은혜로 철저히 변화되고 있다. 오직 은혜의 역사에 너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라! 내가 이 일에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겠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도 태생부터 믿음의 대가가 아니었다.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끝난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이었던 우르로부터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기근과 흉년이였다.

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집트로 떠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된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고 행동을 결정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신뢰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 믿음과 행동의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이 시절의 믿음은 자신에게 무게가 더해진 믿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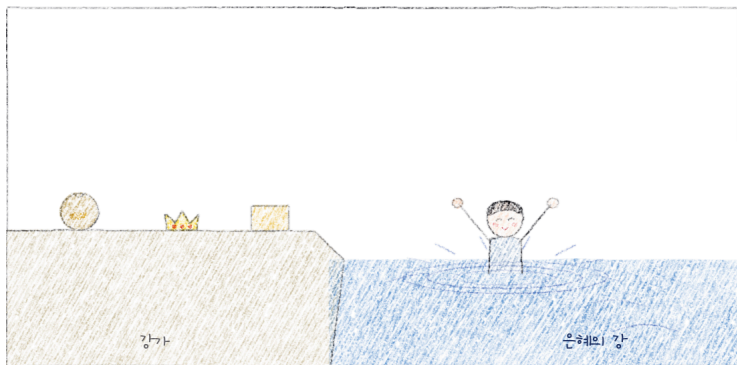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만난 것은 해결이 아니었다. 위기였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뵈나머지 수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자신의 꾀를 믿었다.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 지금의 아내 사라는 이전에는 이복 누이이기도 했다. 아내에게도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당부도 한다.

결국 사라는 바로의 후궁처소에 이끌려 가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온갖 선물을 제공한다. 후에 하나님께서 심하게 꼬인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다. 하나님과의 상의 없이, 자신의 꾀에 의존해서,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일어났던 위기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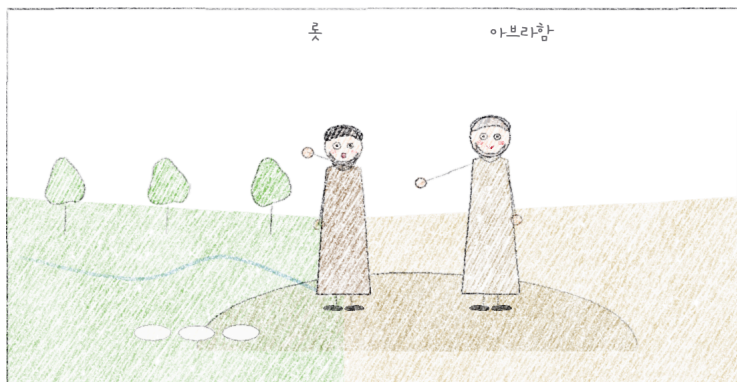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환란과 위기로부터 배우고 변화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다. 믿음 수업을 제대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위기 상황에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던져 놓고 일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철저한 의지라는 의미는 하나님만 잡고 나머지는 놓아 주는 것이다. 그가 의지했고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 것들 모두를 그저 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져 놓게 된 것이다. 강가에서 하는 생각, 행동 모두를 거기에 두고 이제 깊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진 것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 풍성하고 충만한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강가에서 있게 하는 모든 이유들을 이제 내려놓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오직 한 이유 곧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한다. 롯은 비옥하고 물이 확보된 땅을 택하여 간다. 아브라함이 보아도 그 땅이 가축을 키우는 데는 적격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결정에 의해 좋지 않은 땅에 남겨지는 것을 택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 간의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된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의 권리를 강가에 내려 두었다. 강가라는 사회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도 그 권리가 자신의 손에서 가게 두었다. 성경에서는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에서 형성된 계몽주의의 결과이다.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인간을 대체하면서 발달된 개념이다.

아브라함 시대의 관습 문화를 고려할 때 아브라함의 권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신다. 이 믿음이 롯에게 먼저 하게 하는 행위로 표현된 것뿐이다.

먼저 결정하게 된 롯은 결국 최고의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남들보다 나중에 선택하게 되면 그야말로 남은 떨거지들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도 역시 강가에 내려놓는다. 자신의 손에서 가게 한다.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최고의 땅이다. 그 땅은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땅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다.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 기근과 흉년의 땅에 남겨졌다.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 안에 더 큰 번영과 더 확실한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인간은 롯처럼 산다. 그러나 은혜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산다. 리처드 포스터나 달라스 월라드 같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 값비싼 물건들 중의 일부를 자신의 손에서 떠나게 한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갖게 한다. 롯에서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한 자기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좋은 것을 가도록 두는 행위는 윤리나 도덕 혹은 자기 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행동은 오직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것을 가져야 하는 이유 목적 필요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유력자라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기술자라고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다 (전9:11).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은혜 인간은 하나님만 잡고 나머지를 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언제나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전리품을 주겠다고 소돔왕에게 그의 신앙고백을 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집트에서는 다 받아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은혜 인간도 들추면 흠과 오류와 죄투성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를 찾고 추궁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다. 이제 사는 곳도 다르고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도 다르다. 은혜 인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엡4:13)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요 주를 닮아 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은혜 인간은
하나님만 잡을 뿐 나머지는 남이 먼저 하도록 두는
믿음의 사람이다.

은혜 인간 DNA

자녀이니 자녀다워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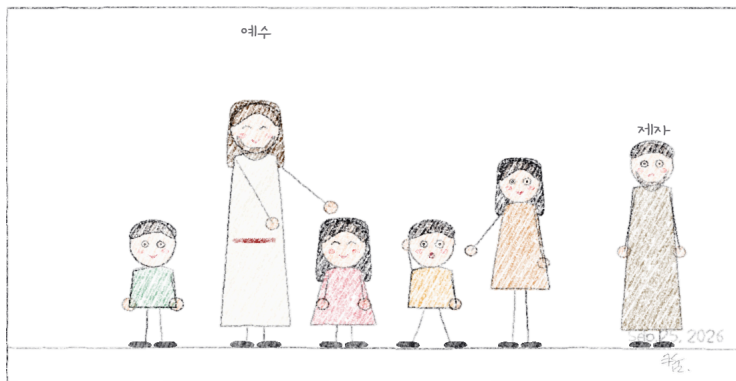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분이나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권리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정신과 삶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용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바뀐 신분에 따른 특권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은혜 인간은 그저 착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로 획득한 새로운 권리를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적극적이고 규모 있게 행사하는 사람이다.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함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법적이고 실제적인 권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에 천국 진입 Entering the Kingdom of God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기대한 것이다(마19:13).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요 예수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구하며 나아오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아서지 말라!(막10:14)”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다. “천국은 상속재산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상속 권리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받고 지니고 있는 자녀가 아니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막10:15)”



천국은 획득 재산이 아니다. 상속 재산이다. 행실 바른 청년이 예수께 달려 나아온다. 그분 앞에 무릎도 꿇는다. 그리고는 입을 연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막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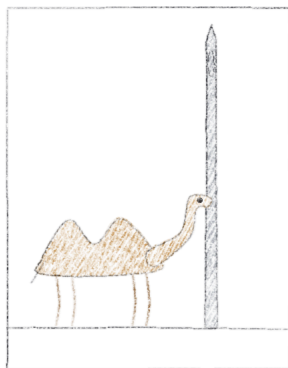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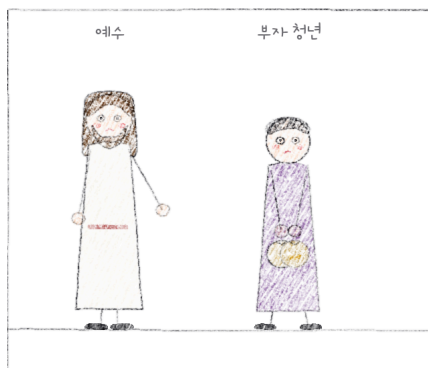
예수님의 답은 질문으로 주어진다. “네가 누구인데 선함을 결정할 수 있는가? 선함을 결정하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뿐이시다. 너는 네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고 있구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실제로 너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사기 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행실 바른 청년이구나.

그러나 선한 행실로 너의 선함을 말하자면 여전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모두 나누어 주라. 이것도 계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막10:18-21)”

이 행실 바른 청년은 결국 부자 청년이었다. 행실이 남달리 올곧으나 소유한 부마저 포기하고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예수,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막10:22).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다. 명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재산, 지식, 명예…
모두 그들이 애써 얻은 것이다. 거기까지는 문제될 것
없다. 문제는 천국도 애써 얻으려 하는 그들의 정신이
치명적인 문제이다. 천국은 재산, 지식, 명예를 얻었다고
그만큼 훌륭해졌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지식, 명예 말고 아직도 소유하고
얻지 못한 덕과 선을 끝까지 완전하게 구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영원히 그들에게
요구될 것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막10:23-25)’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께 묻는다.

“저런 훌륭한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막10:26)”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결국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람은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세상 곧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 오셨지만 자신의 사람들이 그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1:11-12)’ “나의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아서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막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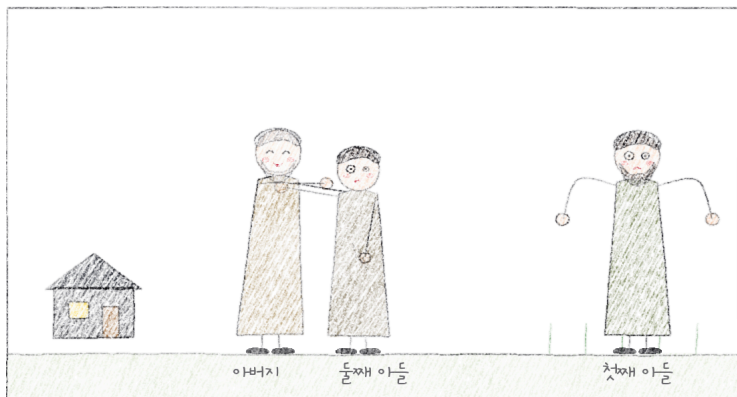
누가복음 15장에는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망한 인생이 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었으나 비관적인 인격이 된 첫째 아들 모두에게 결국 필요했던 것은 확고한 아들로서의 신분Solid sonship이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가 중했기 때문에 다시 아들의 권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회개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눅15:18-19).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께 대한 자신의 행위가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아들일 수 있었다는 자신하는 생각과 더욱더 아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에도 완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괴하는 마음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분노하게 된다(눅15:26-30). 모두 아들의 신분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다. 아들이 방탕해진 것은 마음 찢어지고 분노가 일고 책망에 초달까지 해야 할 아픔이지만, 방탕한 아들은 그래도 아들이다. 스스로 떠나 도망가 버린 바에야 도리 없이 남남처럼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기다린다. 그가 아들이었고 아들이며 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아들은 여느 때처럼 밭에서 성실히 일하다 집에 돌아왔다. 그의 고백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겨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배설되었다는 소식에 화가 나고 절망했다.

본인은 그런 대우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당한 이유인 듯하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질 않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지 못했던 동생이 돌아와 너와 같이 된 일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화를 내고 있느냐(눅15:31)’



첫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리를 얻으려고 했지 받으려고 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그가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vested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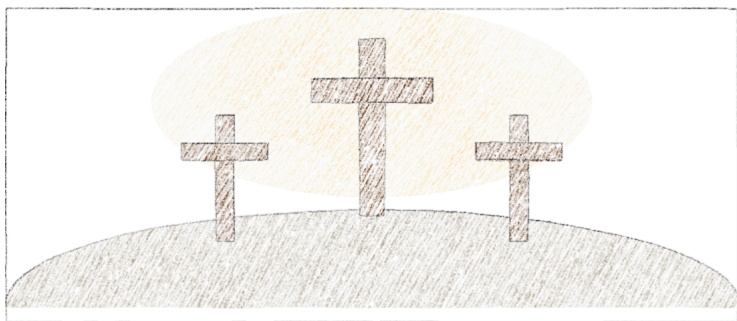
소유하고 있는 상속권이 실제로 재산 소유권 **Right in possession**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들의 권리를 얻으려고 했다.

재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아들의 권리는 오직 아버지가 그가 아들임에 주고 허락하는 것이지, 아들 자신이 어찌함으로 획득하고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상속재산이다. 자녀인 사람의 행실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로 죄수 두 명이 함께 처형당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눅23:42)” 이에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눅23:43)”

회개하는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마음…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다른 특별한 말이나 행동도 한 것이 없다. 자신의 평생의
 흉악한 죄들을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
 다만 낙원을 당신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임을 믿고 고백했다. 그리고 요청했다.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감히
 아뢰는 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그 죄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에
 따르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다.



은혜 인간도 세상을 살면서 온갖 노력과 애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은혜 인간은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권리를 에서처럼 다른 세상의 좋은 것과 바뀔 먹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받게 된 이 권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아버지에게 나는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 실수도 죄도 못한 짓도 많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훌륭하지만 혹여 그 모든 아버지들이 자신의 죄 많은 아들을 참다 참다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버림 받고 홀로 사는 고아가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 뼈로 세포로 경험한 분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못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들을 아들로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하여 모든 그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물며... 예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다. 몸소 버림 받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그래서 죄인으로 수치와 절대 고통 속에서 소리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27:46)”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결국인 사망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에게 쏟으셨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이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자녀가 되려고 살지 않는다. 온통 말썽과 실수, 미숙과 문제투성이지만 자신은 사랑 받는 부모님의 자녀인 줄 의심치 않는다. 다만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자녀답게 말썽도 실수도 줄이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 딸이 되고자 노력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매사 노심초사하는 종교인이 아니다. 은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제멋대로 사는 망나니도 아니다.

은혜 인간은 오직 은혜로 부여받은 자녀됨의 권리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곧 유업 상속권이 실소유로
전환되는 그날까지 범사에 깨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는 일에 매진하는 이 땅 복된 인생이다.

은혜 인간 DNA 베푸는 자로 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모든 면에 복이 넘치도록 하셨다(창24:1). 아브라함은 실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언약의 계승자인 아들 이삭에게 합한 아내를 택하는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노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부탁한다. 주의 사행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고향 땅을 떠나 이미 오랜 기간 타지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 이제 이곳의 언어와 문화가 고향의 그것보다 익숙해진 때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와서 살고 있긴 하지만 가나안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요 자신의 며느리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의 민족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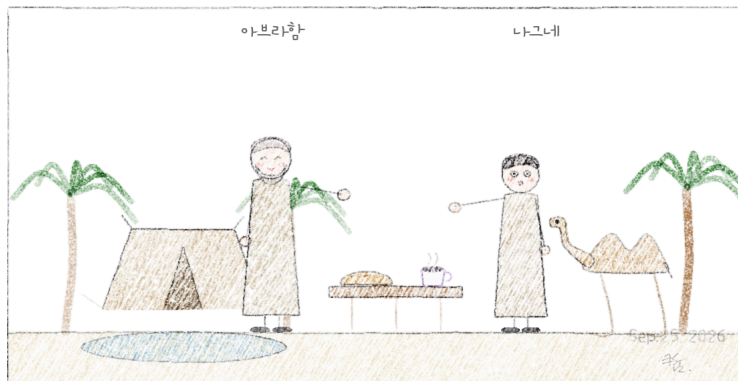
노아의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그는 덮어 주는 은혜 없음에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다. 노예라고 모든 면에서 줄곧 실제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함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보다 실제로 더 나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 핵심은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다. 은혜를 실천하며 베풀며 사는 족속에게 그렇지 않은 족속은 하나님과 세상의 역사 중에도 하위의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방대한 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해 온 자크 아탈리가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인간의 사회는 지역적 야심과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경쟁과 분노로 점철된 두 번째 물결의 시절을 거쳐 결국 관용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며 자기 이웃을 동등하게 대하고 자기 아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트랜스휴먼 Transhuman) 이끄는 세 번째 물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가나안 자손은 소유하고 이기고 성취하기 위해 분쟁한다. 셈의 자손은 참으로 소유하고 참으로 이기고 진실로 성공하기 위해 은혜를 베푼다.

아브라함에게 절실했던 처자는 다름 아닌 이런 민족적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DNA를 유전 받은 여인이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자신이 그 DNA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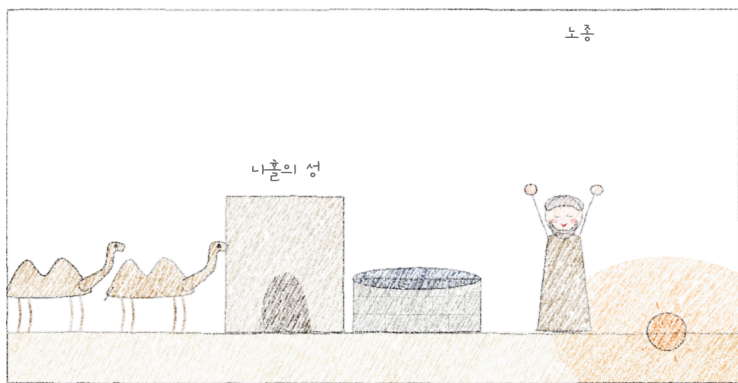
유대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를 보면,
아브라함은 요즈음 말로 환대사역의 달인The master of
hospitality ministry이었다. 사막과 광야를 여행하던
사람들을 자신의 오아시스에 들여 후하게 접대한 후에
야훼 하나님을 전했다. 믿으면 모든 체류비를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부족의
장이나 웬만한 왕들의 오아시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아브라함의 휴게소는 인기가 좋았다. 국영
휴게소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시설과 서비스가
월등했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다. 아들 이삭과 더불어 복의 근원의 계보를 이을 며느리감은 베푸는 데 부지런하고 섬기는 데 친절한 여인이어야 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이었다. 노년에 이를 때에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나누려는 인간의 손길을 통해 온 민족과 열방에 흘러 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는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베풀므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주인의 명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긴 여행에 지친 낙타와 함께 우물 곁에서 휴식을 취한다.
 어둑해질 무렵에는 여인들이 밖으로 나와 물을
 길 수 있었다. 이때 노종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다:
 ‘이 성에 사는 처녀들이 물을 길으러 우물에 올 때에, 그중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저뿐만 아니라 갈증에 지친 낙타들에게도 물을
 허락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허락하신
 머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우물가라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여인네들에게는 피할 거리였다.
 그러나 그 성에 사는 남성이 아닌 긴 여정에 지친
 객으로서의 한번 부탁해 볼 만한 요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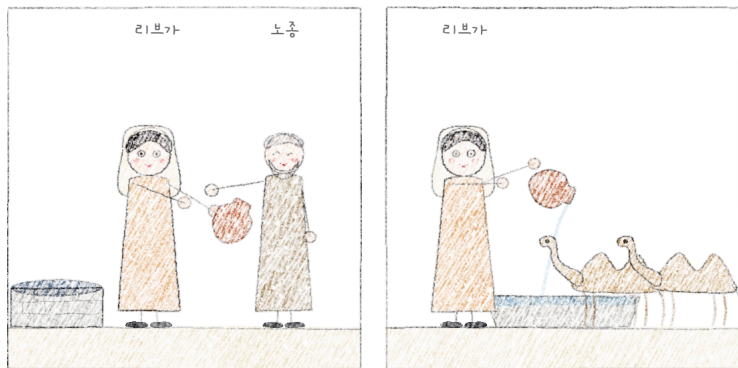
많은 여인들 중 혹여 친절과 환대가 몸에 배어 있는 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종의 기도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소녀가 등장한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 소개하기를, ‘심히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 노종이 리브가에게 서둘러 나아갔다(창24:17). 기도로 준비된 눈에 리브가가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에게 가서 머뭇거림 없이 물을 조금만 달라고 요청한다. 우물에 가서 품을 팔아 자신이 해결해도 될 문제이고 또 잠시 기다렸다가 모든 일을 마치고 도움을 구해도 구해야 할 상황인데, 노종은 지금 리브가가 힘겹게 이고 있는 물동이 속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우물에서 물을 길고 그것을 가져온 물동이에 담아 집으로 나르는 일은 힘들게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다. 특별한 행사나 자리에서 친절을 베푸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때에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사람의 평상시의 생각과 됬됨이가 그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리브가의 몸짓 하나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Quickly 그 물둥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창24:18)’ 노종의 부탁에 즉시 반응한다. 친절과 환대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이 역시 핵심이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베푸는 것이 상대방을 대접함의 자세이다. 후에 시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인생 DNA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곧 남편이 될 이삭을 여호와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번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즉시 떠났다(창22:2-3).

은혜를 베풀어 주어 즉각적인 여인, 리브가는 노종의 약대들에게도 급히 물을 길어 그들을 배불리 마시게 한다 (창24:19-20). 이러한 리브가의 인간됨에 노종은 가만히 그녀를 주시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노종이 리브가에게 감사의 표를 한 후에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된다: ‘누구의 딸이냐? 네 부친의 집에 나와 내 약대가 유숙할 수 있겠는가?(창24:22-23)’ 이에 리브가는 자신을 소개하고 노종에게 거할 곳을 베풀다(창24:25).



이때서야 노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감격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창24:27)”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얻게 된 것이다. 리브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갈 길을 결정한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노종과 함께 길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은혜 인간은 주위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라 함은 복이 그를 통과해 주위에
잘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인생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친절과 환대를 베풀며 사는 이 시대의 리브가들,
그들의 하루 인생에서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된 이 땅
은혜 인간들은 이스라엘 골고다에 그 은혜를 보관해 놓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몸짓 안에 가득 담겨진
그 생수를 급히 필요한 자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예수의
은혜를 통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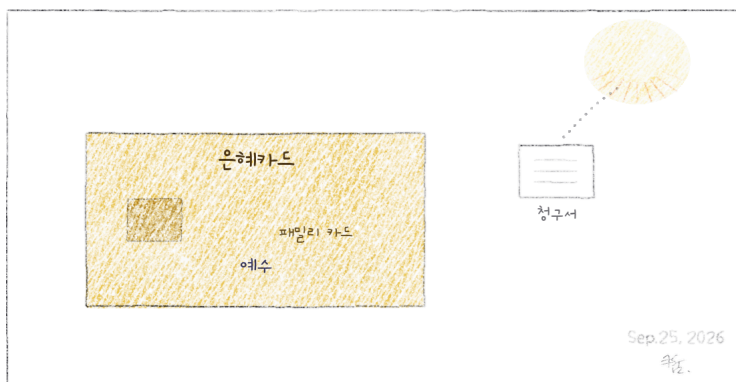
은혜 인간 DNA

받은 은혜를 주는 은혜로 은혜 되게 하며 살라

‘은혜카드’에는 한도액이 없다. 만기일도 없다.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용 시 사인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카드 청구서가 하나님께로 날아간다. 그분이 모두 해결해 주신다.

‘은혜카드’의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소위 말하는 바닥 인생들에게는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모든 빛이 탕감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미 받은 복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복을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자산 관리의 혜택도 준다.

하나님께서 발급해 주시는 ‘은혜카드’의 종류는 오직 하나이다. ‘패밀리 카드’만 내 주신다. ‘은혜카드’를 발급 받은 주사용자 명의로 주위 사람들까지 가족으로 포함시켜 놓으신 것이다. 그네들이 사용한 것을 주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해야 한다. 물론 말이 결제이지 그들의 사용액과 주사용자의 사용액 모두—그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카드’의 약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은혜카드’ 소유자들이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문제시하시는 것은 주사용자가 자신의 카드를 너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카드 약관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되기도 한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베드로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한 형제를 몇 차례나 용서해 주면 되겠는지 예수께 물어본다. 7번 정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답을 주신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마18:22)’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490번의 횟수가 핵심이 아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임금과 두 명의 종’ 이야기(마18:23-35)를 들려주심으로 베드로에게 답을 깨닫게 해 주신다.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다. 종의 하루 품삯이 1테나리온이고 6000테나리온이 1달란트이니까 그 종은 16만 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매일 같이 일해야 임금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빛을 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는 진 빛을 결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종은 임금 앞에서 애원한다. 어떻게든 갚을 테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이 민망한 광경에 임금은 판결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변한다. 처음에는 갚을 길이 없으니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빛을 갚으라고 결정했던 왕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빛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 종은 자유한 자로 놓아 준 것이다. 실로 놀라운 은혜이고 파격적인 해결이다.

오직 은혜로 풀려난 종은 길 가던 중에 자신의 동료들을 만난다. 자신에게 100테나리온을 빚진 친구였다. 빛은 갚아야 하는 것이다. 빛을 갚지 않는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 그래서 그 종은 친구의 목살을 잡았다. 엄격히 말해서 그 종은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빚쟁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 종은 목을 조르며 ‘빚 갚아라! 내 돈 내 나라!’ 했다. 갚을 길이 없는 그 친구는 오히려 애걸한다. ‘어떻게든 갚을 테니 좀 참아 주게. 꼭 갚도록 하겠네!’

그 종은 친구의 청원을 거절한다. 대신 친구를 감옥으로 끌고 가 다 갚을 때까지 가둔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 이에 주인이 은혜 입었던 그 종을 불러들인다. 그리고는 역정을 낸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마18:32-33)’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용서되었던 죄가 용서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다시 판결대에 오른다. 그리고 임금은 그에 합한 판결을 내린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마18:34)’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35)’ 베드로가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 자신의 엄청난 죄가 용서 받았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용서해야만 하는 인생이 된 것이다. 용서받은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로 유효한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발급해 주신 ‘은혜카드’는 놀랍고도 파격적인 카드이다. 한도와 만료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 카드를 마음의 지갑에 품고 있는 자들이 은혜 인간들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카드’는 패밀리 카드이다. 은혜 인간은 자신의 카드에 주위 사람들의 계좌까지 포함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필요한 은혜,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기꺼이 공급해 준다.

그들의 명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마다 자신의 천문학적 빛을 청산하는 문서에 서명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몸서리치며 감격하는 것이다.

은혜 인간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주는 용서하는 은혜로 은혜 되게 하며 사는 인생들이다.

은혜 인간 DNA

해결을 신뢰하지 말고 은혜를 믿으며 살라

인간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로 그 원인을 정리할 수 있다. ‘믿는다고 뭐 해결되는가?’라는 믿음이라는 인생살이 방법 자체에 대한 의심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 간에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은 인간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언제나 ‘해결’이 0순위이다.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이런 인생 제대로 살려면 해결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믿음으로만 살 순 없다는 것이다.

해결 중심적인 인간은 세상을 이렇게 본다: 파악된 문제, 해결에의 노력, 문제 해결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의 해결 중심적인 인간 집단이 소개된다.

신학적으로 노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곧 ‘땅에 충만하라(창9:1)’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성경은 더 근원적인 문제에 손을 가리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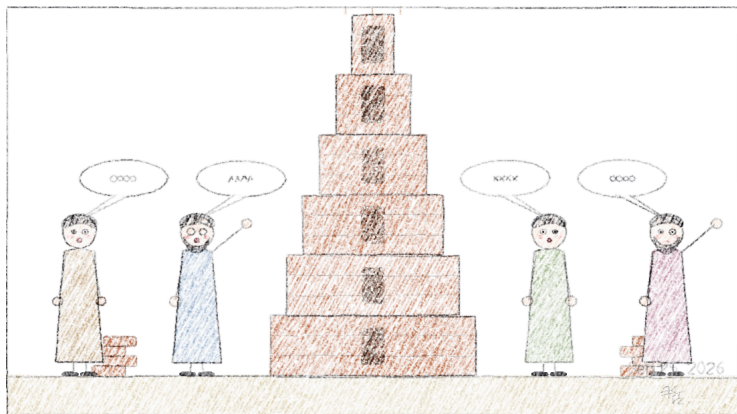
그들이 높은 탑이 있는 큰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 흠어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창11:4).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한낱 객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대홍수 같은 또 다른 천재지변이 온다면 대책 없이 피해를 입고 뿔뿔이 날선 곳으로 흠어짐을 당해야 하는가?’

문제가 보이니 해결을 하고 싶었다. 한낱 방랑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 건 도시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늘까지 닿는 마천루가 자신들의 도시임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표상이 될 것이다.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여 살아야 하고 모여 살기 위해서는 잘 건축된 건물들이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기법이 요구되었다. 벽돌을 제작하되 벽돌을 굽는 방법에 신경을 써서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야 했다.

또한 벽돌과 벽돌을 잇는 접합제를 진흙이 아니라 회반죽 Mortar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노아에게 명하신 ‘땅에 충만하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9:11)’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은혜로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9:1)’였던 것이다. 축복을 어길 수는 없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복을 저버릴 사람은 없다.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다. 도시 건설에 꿈을 가졌던 자들은 약속을 생각지 않았다. 은혜로 살기를 거부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면 해피 라이프, 행복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돌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창11:7). 이때부터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지만 해결을 완전히 할 수는 없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00% 나 개인의 문제도 100% 해결하기 어렵다. 인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는 오직 100%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그것도 소통된 내용을 서로 완벽히 이해해 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과 은혜를 통하지 않은 모든 해결에의 노력이 결국은 허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인생을 궁구히 연구해 본 전도서의 지혜자도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한 말이 이것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8)’

바울 사도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해결하기 원했다.
 육체의 찌르는 가시 곧 사단의 전령과도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세 번이나 간청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해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 대신 문제의 해결에서 은혜의 족함으로 눈을
 돌리게 하신다. ‘나의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고후12:9)’



족한 은혜는 바울 사도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다. 현실이다. 능력이다. 은혜가 충분한 이유는 바울
 사도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은 그 육체의 문제
곧 바울 사도의 약함 중에서 하나님의 바울 사도를
참으로 강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더욱 왕성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의 해결과
대립관계가 아니다. 참된 해결을 결국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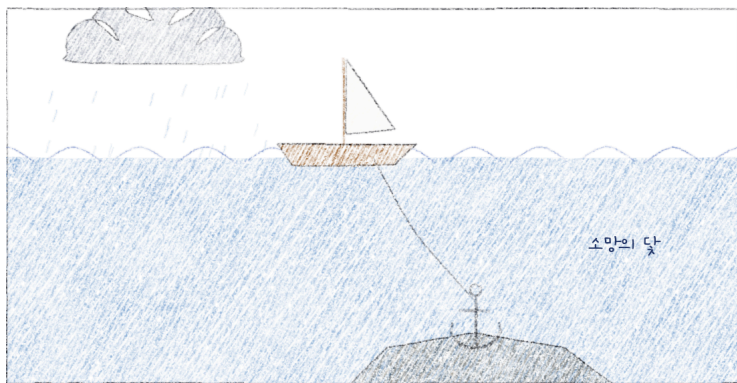
바울 사도는 자신의 문제 인생 곧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감사 찬양의
이유가 되는 자족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It is by
God’s grace that I am what I am(고전15:1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소중한 시간과 정력과 지혜를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안고서라도 사명을 성취하는데 남은
한 방울의 땀과 피까지 쏟는(딤후4:6-8)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은혜 인간은 해결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개발과 발전이 곧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항상된 상태를 가져다 줄 뿐 진정한 해결과 그 해결로 인한 행복과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을 사는 현대인으로서 인류에게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해결에의 수고와 노력은 인간으로서 본분이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소망이 근원하지 않는다. 수고하며 노력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 가되 은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의 닻을(히6:19) 내려야 한다.



이렇게 살 때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삶에 대한 소망을 채워 주는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네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나의 은혜는 너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나의 은혜는 바로 너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만들어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은혜를 중심 삼아 살면 족한 인생으로 살고, 해결만을 구하며 살면 언제나 미해결 인생을 살게 된다. 은혜 인간은 해결을 위해 성실히 땀 흘리되 절대로 해결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나의 삶에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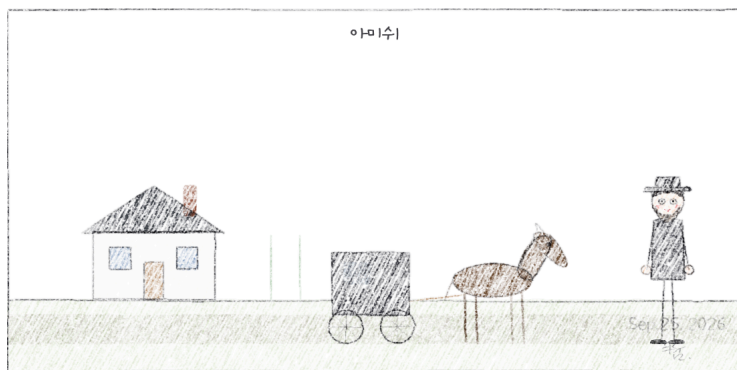
은혜 인간은 자신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히12:2).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라는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셨다. 그 문제의 잔을 그대로 마시셨다. 그러나 그는 패배자 실패자가 아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은혜 인간은 해결을 신봉하는 문제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성취되는 은혜 중심의 인생을 산다.

은혜 인간 DNA

성경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라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는 아미쉬 마을로 유명하다. 아미쉬는 메노나이트의 분파로 18세기경에 미국으로 건너와 이제까지 그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자동차 대신 마차를 사용하고 검정색 옷을 입는다. 전기도 없다. 램프를 켜고 불을 지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미쉬 마을을 방문한다.

방문객들은 청교도처럼 옷을 입고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플리머스와는 달리 실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미쉬의 생활방식 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방식이다. 그들의 신앙은 간단하다. 그러나 강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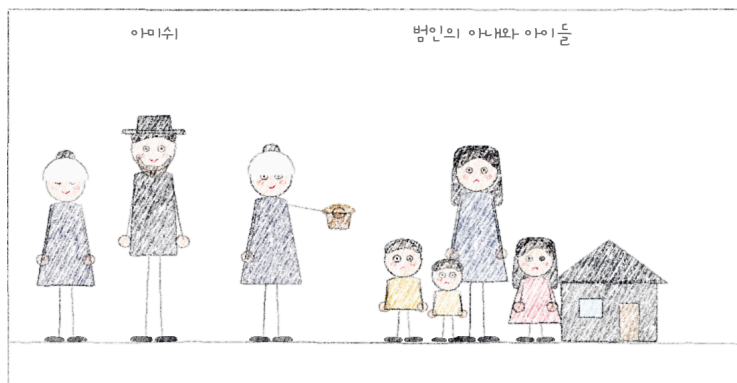
2006년 10월 2일 평화로운 아미쉬 마을에 대참사가 일어났다. 찰스 칼 로버츠라는 남자가 총기를 소지한 채 아미쉬 학교에 들어왔다. 선생들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을 내보내고 10명의 여학생들을 인질로 삼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찰스 칼 로버츠는 18발의 총을 쏘았다. 10명의 머리를 향해 발사된 총알은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1명은 살았으나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고 나머지 4명은 회복되어 학교에 나가게 되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 환자가 된 것이다. 살인자 찰스 칼 로버츠는 자신에게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참혹한 사건 앞에서 아미쉬는 증오나 복수로 반응하지 않았다. 용서와 사랑으로 행동했다. 그저 마음의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다. 돈을 모금해서 찰스 칼 로버츠의 장례식 비용을 위해 사용했다. 장례식 참석자 중 반이 아미쉬들이었다. 장례식을 증계하기 위해 모인 방송 관계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미국 전역에 증계했다.

세상은 아미쉬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꿈에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5명의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 악랄한 살인마에게 저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세상의 질문에 대한 아미쉬의 답은 간단했다. 그러나 강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월 3일자 USA Today에 아미쉬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메시아 대학의 데이비드 위버-저쎈 교수가 소개되었다. 그는 아미쉬가 용서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범인의 아내와 3명의 아이들도 역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예측의 근거는 무엇이였을까? 조지타운대학의 한 메노나이트 학자는 설명한다. 아미쉬는 하나님 말씀이 행하라고 한 바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그래서 그들은 살인자도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드린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마6:12)’

물론 제아무리 순결한 신앙의 아미쉬라 할지라도 그들도 인간이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결국 성경이 예측한 대로 행동하는
신앙이다. 용서하라기에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뒤섞인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요는 성경을 보면 아미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죄성을 지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행동을 성경
말씀대로 하지는 못한다. 성경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다를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지 이미 오래 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 새로운 존재가 된 인생으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행동 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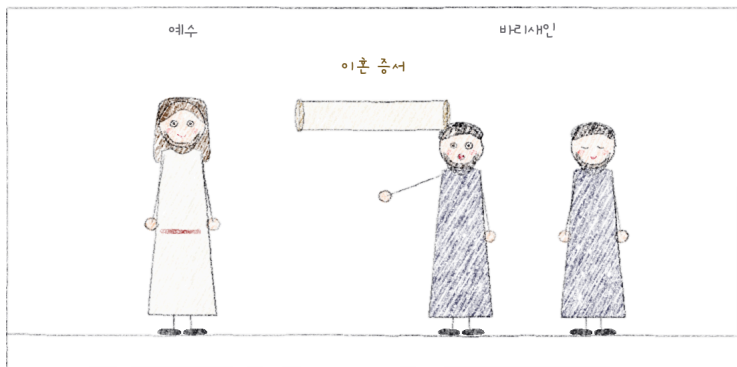
지금 이 형편과 이 상황에서 성경은 나의 반응을
예측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이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참으로 복잡미묘한 것이
사실이다.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빛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든지 빛을 맞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인간행동은 없다.

범죄자의 행동은 범죄 심리학자나 경험 많은 수사관에 의해 분석 파악된다. 성경도 빛을 거부한 자들의 행동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향해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품고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 말씀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인생들의 새로운 행동을 소망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은혜 인간은 성경의 예측이 자신의 행동으로 현실이 되도록 성령께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이다.

이러한 은혜 인간에게 위험천만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 ‘바리새인 태도’가 그것이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통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예측하기 시작한다. 바리새인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 축복이며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는 나의 지식으로 성경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모든 질문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한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질문이 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묻는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그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마19:3)’ 모세의 율법 곧 성경말씀에 이혼 증서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혼 증서를 써 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버려도 된다’ 해도 문제로 삼을 거리를 얻고,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지만, 성경의 전문가인 그들에게는 어떤 설명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말씀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놓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계셨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다. 마음이 강박했다. 의도가 완악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의 행동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진정한 신앙인에 대한 성경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행동이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말씀이신 예수의 행동을 예측했다.

상황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듯이 보였지만,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예측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심각한 대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경이 예측한 삶을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예측한 대로 말씀이 움직이게 하느냐?’

인간의 행동은 절대로 예측 가능하다. 문제는 ‘성경의 예측이 맞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예측이 맞았느냐?’ 하는 것이다.

은혜 인간은 성경의 무오함만을 믿는 자가 아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오함을 내 행동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이다.

은혜 인간은 말씀을 공부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다.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게 하며 나에 대한 성경의 지식과 기대와 축복들이 진리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성경이 예측한 대로인 삶이었다. 예수님께도 과정 중에는 시험도 괴로운 마음도 피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의 행동은 ‘이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로 결론 났다.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경험하셨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몸소 받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사53:3-5). 은혜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 때문에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자이다.

은혜 인간은 세상이 아닌 성경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자이다.

몸과 마음이 곤해지고 세상의 생각이 많아질 때 은혜
인간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마26:54)’ 결국 은혜 인간은
‘너 역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세상의 예측을
빚나가게 할 것이다.

살인자를 용서함으로 세상의 예측을 완전히 빚나가게
한 아미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약1:27)’. 아미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현재 상황에서
행하여야 할 자신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찰스 칼 로버츠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세상의 예상은 다시 한번
크게 빚나갔다.

은혜 인간 DNA

자유로 진리의 종노릇하게 살라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면 왕도 독재자도 제국의 법도 심지어 민주적인 정권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진보와 개혁이 이루어진 셈이다.

작아지는 공권력이 시대의 대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삶의 각 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다.

일제 시대나 과거 군사 정권 같은 시절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개인의 자유가 생명을 내 건 투쟁 끝에 맺히는 열매였다. 당시 못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염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자들을 독립 투사 혹은 민주 투사라고 명명할 정도로 자유는 투쟁을 통해 어렵사리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금에는 자유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 속에서 개인들은 더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기 위한 열심으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악법도 법이라고 자신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을 내던진 그리스의 현자도 있었다. 지금은 악법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한 법조차도 개인의 생각이나 이익과 대치될 경우 자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가차없이 전개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이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 민의를 잘 반영할 정치인을 나라의 일꾼으로 선출한다. 이렇듯 국민 투표는 국민 개개인들의 자유권 수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이다. 국민 투표율이 현저히 낮다는 말은 국민들의 민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그 시작과 동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위와 투쟁 참여율은 건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정치에 직접 나서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유를 확보한 개인에게 있어서 국가의 법은 그 자유를 부여하는 권위이기에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결국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권 자체이다.

과거와 같이 권력자나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몸집과 영향력이 크지 않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통해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열린 정보 사회에서 개인의 인생은 오직 개인의 소유이다. 상관하고 개입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의 자유’를 축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미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문제이다. 어렵사리 소유하게 된 ‘나의 자유’를 오직 나 개인이 소유하고 지켜낸다는 것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도자와 정부와 조직과 계속되는 투쟁을 할 것이고 결과는 언급했듯이 개인들의 승리일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때 빅가이’들은 점점 그 규모와 힘이 줄어들다. 개인의 자유는 점차 증대된다.

이제 개인들은 자신들이 투쟁해 왔던 그들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유 침범자’들과 개인의 실력과 역량으로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처럼, ‘맥피아 - 맥도날드와 마피아를 합성한 신조어’의 수와 그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미래학자들의 생각이다. 이미 곳곳에서 맥피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 이제는 예전 거인 문지기들도 난쟁이들이 되어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7월 1일자 조선일보가 베이징 저널의 기사를 소개했다:

“강력한 용이 뱀을 못 이긴다(強龍鬪不過地頭蛇).” 중국인들이 요즘 ‘부패 문제’가 화제에 오를 때, 자주 꺼내는 말이다. 중앙정부(強龍)가 지방의 조폭, 즉 ‘디터우서(地頭蛇)’를 척결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도 어찌지를 못한다니 디터우서의 기세를 짐작할 만하다. 올 4월엔 광둥(廣東)성 자쯔(甲子)진에선 AK소총으로 무장한 조폭 수십 명이 대낮에 활극을 벌이는 장면이 지역신문인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을 경악시켰고, 작년 6월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에선 장갑차로 무장한 조폭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뜯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상당수 ‘디터우서’의 우두머리는 ‘투황디(土黃帝)’다. 투황디는 권력과 이권을 한 손에 쥐고 황제처럼 군림하는 부패한 토착 관리로, 현지 디터우서와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유가 유사 이래로 이렇게 확대된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시절이 왔지만 커진 자유도 빼앗기면 속박이요 억압으로 전락하는 것은 매일반이다.

국가보다는 작고 웬만한 개인들의 모임보다는 큰 규모의 강력하게 정비된 맥피아들의 횡포가 각 분야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면 되지 않나 싶지만, 때는 바야흐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시절이다. 이미 오랫동안 ‘나의 자유’를 위해 살아오는 데 익숙한 개인들이 ‘우리의 자유한 상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또한 맥피아들과의 투쟁은 길거리 싸움이다. 법과 제도의 장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를 아는 개인들이 보호 장비도 없이 무법의 싸움판에 뛰어들 리가 만무한 것이다.

요는 이것이다. 자유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자유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억압과 구속 안에서는 당연히 자유하게 살 수 없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에는 자유하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명료하게 답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자유는 내가 실제로 자유한 상태이다. 나의 삶, 정신,
현실이 무애無碍한 것이다. 레너드 리드는 그의 저서 『
Talking to Myself』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에 믿음을
두어서는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유와
속박을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내가 아무런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레이블이 붙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나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자유를 위해 생명을 걸고
투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내가 자유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열망하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자유가 아닐 때가
허다하다. 그것에 믿음과 소망과 신뢰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곧 노예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 죄성은 어떤 시대 어떤 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소수가 자유를 지닌 시대에는 그 소수의 자유는 다수의 속박과 억압을 위해 사용된다. 다수가 자유하게 된 시대에는 그 다수의 자유는 ‘너와 우리’가 아닌 오직 ‘나와 나의 것’에만 사용된다. 자유가 죄성에 잡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죄성이 자유로워진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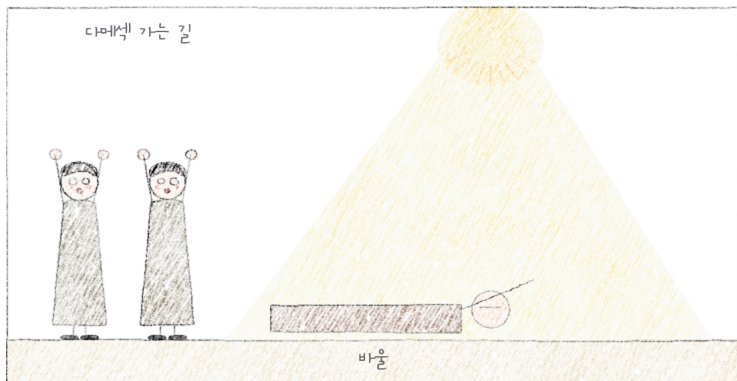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부인할 수도 떨쳐낼 수도 없는 죄성이 진리에 잡힌 상태를 의미한다. 진정한 자유케 됨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죄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진리 안에 있는 인간은 죄성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자의 죄성은 진리가 손봐 준다. 횡포를 부릴 수 없다. 진리가 죄성을 제한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예수가 곧 진리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에 이르는 길이 되시기 위해 죄의 횡포의 절정인 생명을 빼앗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죄의 권세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권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당신의 진리 안에 끝까지 머문 아들 예수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구원자 예수로 들어 높이셨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와 그의 십자가 복음의 종이라고 했다(롬1:1). 로마의 자유시민이었으며 학식으로는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그에게는 많은 자유가 있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유대교의 이단자들인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데 특심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그의 많은 자유로도 자유하지 못했던 그의 영혼과 인생에 참 자유를 주셨다.



지금껏 소유하고 있던 자유라는 딱지가 붙은 소유물들이 이제는 배설물 정도의 가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대신 자유케 하는 그 이름, 진리이신 예수께 자신의 자유를 잡아매었다.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 자유를 진리에 종노릇 시키는 삶을 살았고 그 열매로 그는 모든 환난과 곤핍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참으로 자유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은혜 인간은 위대한 소식, 모든 인간들을 위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진리만이, 진리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믿는 믿음이다. 은혜 인간은 지금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얼마만큼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든지 진리에 나의 가진 자유 모두를 잡아매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바로 이 삶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이 무엇인지 황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며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인간 DNA

보이는 것이 참담할 땐 들리는 복음으로 살라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온갖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좋은
경험만 하면 좋는데 인생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화창하고 상쾌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
가뭄과 홍수, 흑한과 흑서,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인생의 날씨인 것이다.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로 성공해 본 사람만이 안다.
소망했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굴욕과 패배를 수없이 감내해 내야 한다. 실로
산다는 것은 결국의 영광스러운 경험 플러스 주로가
참혹한 경험 그 둘을 합친 것이다.

이런 삶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은혜
인간은 동일하게 주어진 사람의 생을 언제나 다르게
진행시켜 나간다.

괴로운 일이 눈 앞에 펼쳐질 때 은혜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만 하지 않는다. 참혹한 경험을 하는
사람치고 자신을 반성하며 진실된 뉘우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은혜 인간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 보이는 것이 모두
죽음 같더라도 자신 안에서 들려 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찾아 낸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미움과 증오로 분노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불길
같은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희망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 처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공의가 언제나 그분의 자비 안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비이며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비로 죄의 참담한 결과를 용서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거룩과 공의로 볼 때 정녕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죄악된 인생들을 그의 자비로 새롭게 살려내신다. 이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바로 그 광야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야영을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네가 여기 처하게 된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기대했던 바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일어나 움직일 것이다. 단 나의 움직임은 네 눈으로 볼 수 없다. 네 눈은 오로지 참담한 광경에만 고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네 귀로 나의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혜 인간은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아니 눈을 감아도 보이는 참혹한 현실에 매장되지 않는다. 초라한 텐트지만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어진 참담한 결과가 아니라 들리는 불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으로 자신 전체를 던진다. 그리고는 새로운 가치와 신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용기와 힘을 얻어 자신을 일으켜 문제가 가득한 밤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와 해결의 은혜를 베푸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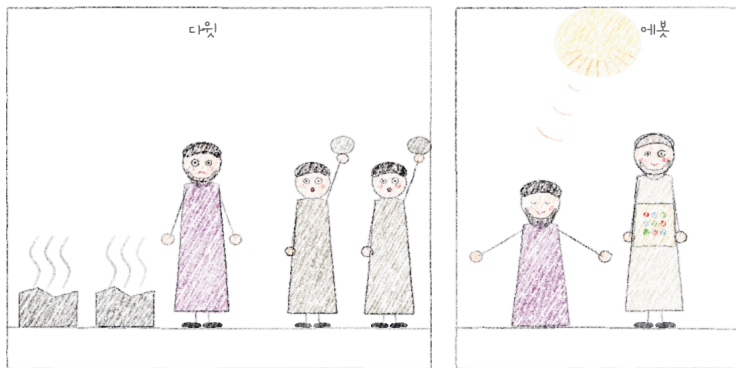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죽을 정도로 괴로운 현실이었다. 조국으로부터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이다.

그의 인생을 더욱 모질게 만드는 것은 지금 다윗은 다른 나라도 아닌 조국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에 투항하여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블레셋 왕의 보디가드가 되는 조건으로 망명한 것이다.

블레셋의 성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참전하려고 했다. 그러는 그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아무리 망명한 자이지만 어떻게 적국의 장군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다윗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왕도 방백들의 반대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전쟁터로 향하고 다윗은 돌아오게 되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다윗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스라엘의 숙적 아말렉이 다윗의 사람들을 쳤다. 다윗이 돌아 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 불만을 다윗을 향해 폭발시켰다. 특별히 자식이 죽임을 당한 부모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회의까지 했다. 상황은 참혹했다.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도 심하게 괴로웠다. 참담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적국에 망명한 선택 자체가 이해 불가한 것이고
 그 결과도 잘못된 선택에 걸맞은 참담한 것이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길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다윗의 생존 방법이였다. ‘뭐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다. 차라리 일본 사무라이나 가미가제처럼
 민족과 국가를 위해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것이 온전한
 행동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신의식이 없는
 개인, 민족은 자의식도 없다. 실제로 일본말에는 자존감
 Self-esteem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들의 신은 ai로
 음역되는 사회, 민족, 국가 같은 전체로서의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진정한 자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참담한 현실, 수치스런 결과라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면 자신의 생명을 전체의 명예를 위해 버리는 행위 곧 자살하는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다윗은 죽음의 참담한 상황,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죄책하는 마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 당하지도 스스로 죽이지도 않았다. 은혜 인간은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가지고도 진정한 생명을 향해 몸부림치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다윗의 선택, 행보, 결정이 올바른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의 방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윗은 보이는 것, 일어난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처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건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전에는 에봇이 없어도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렵고
괴로운 상황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자신을 위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바로 한 인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는 믿음이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어
자신을 다시 세우고 (6절) 아말렉을 쫓아서 잡혀간
자들과 빼앗긴 것들을 그대로 회복하는 승리의 기록이
나온다. 인생에 참담한 경험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인생을 살되 진정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삶의 태도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참담한 상황에서 자신을 죽게 두지 아니하고 소망과 용기를 품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정녕 복이 있다. 그는 보면 볼수록 죽음으로 이끄는 상황이 아닌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은혜 인간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렵고 곤하고 실패와 수치를 당하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만 들어야 산다. 그의 위로와 용서와 회복과 세우심과 높이심의 말씀을 들어야 자신을 살릴 수 있다. 상황 그대로, 약하고 악하고 깨지고 어긋난 인생 그대로 예수께 얼굴을 돌리라. 삼킬 듯이 내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불길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우리의 차갑게 죽어 가는 마음을 생명으로 타오르게 할 것이다.

일어난 일이 일어났던 일이 되는 것이 은혜이다. 계속되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은 그대로 참혹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상황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로 살고 있는 현주소이다.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 힘과 용기와 자격을 품고 그 상황을 향해 회복자로 달려 나가는 인생이 된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거리이다. 십자가에서 우릴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확실한 증거이다. 고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살리는 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죽이는 습관을 버리고, 들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태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은혜 인간 DNA

날씨 보고 결정하지 말고 날씨 속으로 들어가 살라

인생을 잘 살려면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잘 산다.
 경험으로 알든 지식으로 알든 아는 것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인문교육이든 직업교육이든
 교양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사람은 하여튼 가르쳐서
 아는 것이 있게끔 해 줘야 사람 구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 모르는 것(미지)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다.
 아는 만큼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이 시대의 신앙이다.

그러나 실상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으로 인생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모두 알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인생에는 다른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알 수 있는 영역과 이해 불가한 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식 정보 사회를 경쟁적으로 사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농경시대에는 농부의 오랜 경험 특별히 날씨에 관한 경험과 데이터가 필수였다. 그러나 다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행위가 미신, 과장된 종교행위, 거짓 지식들을 양산해 냈고 그중 일부는 민족의 전통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첨단과학시대인 현대는 날씨로 상징되는 인간 외적인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서 예측한다. 그리고 다가올 상황에 대처하고 그 결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룬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 시대의 신종 미신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적이고 첨단적으로 미신에 빠지는 인생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알 수 있는 영역에서 인류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이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속도와 양은 더욱 굉장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자로서 성실과 열심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깊고 넓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수요 기본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에 대해 변해가는 세상이나 앞을 향해 뛰어가는 동료들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동시에 은혜 인간은 인정함이 있어야 한다. 뼈와 폐부 그리고 모든 삶의 노력들까지 파고 들어가 내장되어 있는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모든 보이는 것과 이해 가능한 것들을 받치고 있는 우주의 기초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고 계심이 그것이다. 신앙인의 이러한 인정함과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대단한데 지혜가 없다 혹은 지혜는 밝은데 믿음이
아쉽다라는 말을 한다. 그 표현의 의미는 알겠으나
그 표현은 성경적으로 자체모순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늘의
지혜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지혜
안에서 지식을 사용하여 천지 우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 인간은 당연히 세상의
지식보다 하늘의 지혜를 중요시한다. 중요시하다 보니까
더욱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언제나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지금을 살다
보면 그저 오는 것이 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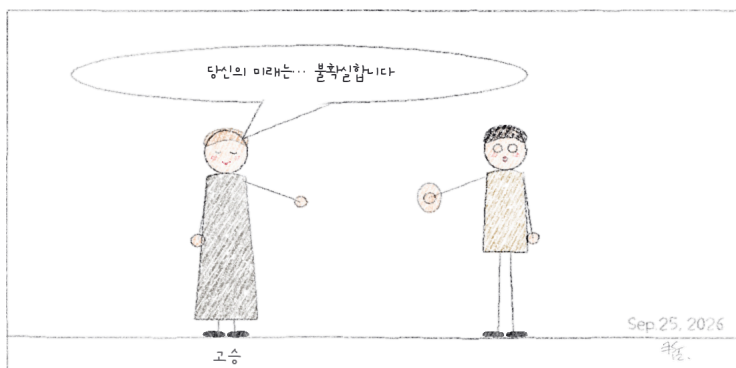
그런데도 굉장히 신비스럽고 미래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예언 기도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도 몰래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인 류시화가 옮긴 책에 소개 되어 있다.

한 사람이 고승을 찾아갔다. 자신의 미래를 예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올바른 수행승들은 절대로 점을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그 불교도는 고집이 섰다. 자신이 그동안 고승에게 얼마나 많은 음식을 공양했고, 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주를 했고, 자신의 일과 가족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얼마나 고승을 차에 태워 모시고 다녔는가를 상기시켰다.

그 고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려고 하는 그 남자의 결의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는, 절대로 점을 봐주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계율을 단 한 번만 어기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손을 이리 내시오. 손금을 한번 봅시다’ 그 불교도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었다. 이 고승은 다른 사람에게는 손금을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성자로 여겨지는 고승에게 실로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그가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미래가 될 것임에 분명했다.

고승은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그 남자의 손금을 짚어 나갔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오, 이런! 흥미롭군. 무척 흥미로워’ ‘음, 음, 그래 바로 이거야’ ‘놀라운 일이군!’ 그 남자는 기대감에 부풀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침내 손금 보기를 끝낸 고승은 그 불교도의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점괘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불교도는 너무 흥분해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드디어 고승이 미래를 점쳐준다. ‘당신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과연 그의 점괘는 틀리지 않았다.



인간에게 입수 가능한 지식Knowledge that is available to human beings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믿음을 구한다. 믿음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존재하고 진행되는 실재에 대한 자각이다. 이 믿음 없이는 보이시지 아니하고 분석 이해할 수 없는 실재는 실재가 아니라는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이다.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이외에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물론이다. 믿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인도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매 순간의 생활 중에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다. 성경은 이 지혜를 그 어떤 좋은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평가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 지혜를 사라(잠4:7)’

믿음은 미지와 신비를 처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다.

인생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과 알 수 없는 영역의 합이라고 말했다. 일어날 일, 내가 가는 길의 종착지에 대한 무지가 인생의 기본이다.

마음만 먹으면 수천 수만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내 마음 내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다. 무엇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는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의 반증이다.

미지와 신비 그리고 초월의 영역이 있다. 거기에 속한 것들을 알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나 또한 이를 무시하는 사람 모두 큰 낭패를 본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미신이나 요상한 이론을 만들어 낸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포장도 한다. 신비와 초월을 어떤 생각에서든지 무시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도 자신의 인생이 결코 그 영역에 관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혹해 하게 된다.

날씨를 보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 경험과 데이터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사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언제나 여지를 두어야 한다. 기본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인정함이 있어야 한다.

날씨를 본다는 행위는 보지 못하고 파악 못하는 날씨 배후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풍세만 살펴보고 구름만 보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진정한 기회도 실재하는 자유도 없다(전11:4). 자신이 확신할 만큼의 정보와 데이터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나 날씨는 다시 변화한다. 연구하고 경험했고 분석했던 날씨가 지금 내 인생의 날씨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동할 수가 없게 된다.

무엇을 해도 확신과 평안이 없다. 불안하고 날카롭고 공격적이 된다. 『슬로 라이프』의 저자 쓰지 신이치는, ‘씨앗이 자라는 속도를 넘어선 곳에서는 공포만이 자랄 뿐 안심은 없다’라고 말한다.

은혜 인간은 씨를 심는 사람이다. 날씨가 전공이 아니다. 날씨도 예상하고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씨를 뿌리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늘만 환경의 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려야 할 씨가 두 손에 한 움큼씩 있기 때문이다.

두 손에 들린 씨는 소명이다. 보이는 날씨보다 보이시지 않으나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요소God-Factors에 관심이 있다(고후4:18).

뿌려야 할 씨가 있기 때문에 날씨를 참고는 하되 그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비바람이 불어도 뿌려야 하는 씨라면 그 날씨 속으로 들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매 곡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시126:5-6).



뿌려야 할 씨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이다. 날씨를 다 예측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 씨 뿌리기에 완벽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양식 증강을 위해 농사를 짓고 싶다는 갈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은혜이다. 이 꿈과 소망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뿌리 내린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다. 뿌려야 할 씨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곡식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뿌릴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어떤 날씨 가운데서도 사명의 농사꾼이 되어 있는 나 그리고 곳은 날씨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런 복 받은 사람은 뿌려야 할 씨를 어느 날씨 어느 상황에서든 다시 뿌릴 수 있다. 실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실패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은혜 인간은 씨 뿌리는 사람이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실패는 어떤 이유인지 씨 뿌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실패 상황이지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 인간은 실패의 날씨, 기대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을 위한 씨앗을 여전히 뿌리고 있는 세상 환경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전11:6).

우리의 한계는 언제나 믿음을 요청한다. 씨 뿌리는 자는 뿌리고 나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경험하고 있는 박한 날씨는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그 날씨 속에 있을 뿐이다. 나는 그 순간도 씨 뿌리는 사람이다.

그 씨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다. 나를 볼 때마다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은 날씨와 상황에 무산되는 법이 없다. 온갖 날씨와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씨 뿌리는 은혜 인간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내 안에 힘을 발휘한다. 날씨와 상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혹은 저번에 뿌린 씨가 어떤 이유인지 흉작이 되었다고 본연의 축복인 씨 뿌리는 일을 지금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죄이다.

뿌릴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나의 꿈에 대한 죄이다. 믿음만이 무지와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를 헤매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경주하게 하는 힘이다.

은혜 인간은 오늘도 씨 뿌리는 인생들이다. 천국의 씨를 이 땅에 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들이다. 풍세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지금의 날씨만 관심 있는 사람은 뿌리라고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고만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다.

예수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가신 곳은 골고다이다. 해골 같은 날씨와 죽음 같은 상황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환경이었다. 풍세만 봤다면 조금 기다렸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았을 터이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는 반드시 뿌려야 할 자신의 씨라는 사실에 집중하셨다. 날씨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날씨 속으로 들어가 생명의 씨를 뿌리셨다. 피로 생명으로 뿌린 씨로 온 인류는 용서와 영생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의 씨 뿌림으로 성취되었다.

날씨를 보고만 결정하여 사는 인생은 결단코 씨 뿌리는 자가 아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과 이해 가능한 것들을 운용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에게 주신 하늘의 꿈… 아이러니하게도 풍세에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일수록 날씨의 좋고 나쁨에 가장 영향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다. 반쪽만 살고 사는 반쪽의 영역에서도 매여서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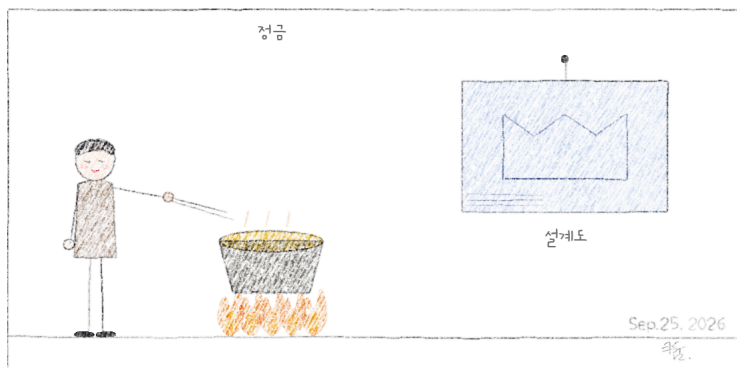
반면 은혜 인간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풍세에 의존치 않고 뿌려야 하는 씨를 뿌리는데 집중하여 살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때사 자유하고 평안과 감사 행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 간다. 은혜 인간은 날씨를 보고 결정하는 삶을 버리고 심령에 떨구어 주신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들고 날씨 속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은혜 인간 DNA

정금이니 정금 인생처럼 살라

값비싼 장신구는 격이 다르다. 정밀하고도 기나긴 수공 과정을 거쳐 최고의 가치로 탄생한다. 이미테이션이 판을 치는 세상일수록 진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소유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유사제품은 파손되거나 심지어 분실되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진품은 그렇게 다루게 되지 않는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다.

진품은 달리 가치품이 아니다. 애당초 제작에 사용된 재료가 가치 있다. 완성품에 쏟은 노력과 예술적 감각이 그 가치를 더욱 빛내 주긴 해도 원래 그 물건은 처음부터 고귀한 것이었다. 재료가 그렇게 고귀하니까 까다롭고도 기나긴 공정도 유익한 것이다. 재료가 정금일수록 더한 정금 제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세공업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세상살이가 점점 어려워진다. 첨단 과학 장치와 선진 사회 제도 그리고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집에 살아도 어찌된 일인지 못 살겠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어려운데 사실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이다. 좋아지려고 스스로 겪어 내는 어려움과 어려워지는 세상을 그저 살고 있으니까 겪는 어려움이다.

그런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감내해 내는 어려움 역시 두 종류이다. 하나님 계신 어려움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려움이 그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어려움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계신 어려움이라는 말은 지금 어려움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 사람은 ‘나’지만 그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어려움이다. 이와는 상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없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은혜 인간은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남들보다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은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은혜 인간 역시 어려움 속에서 산다. 곤란하고 힘겹고 피눈물 나고 서럽고 아프고 쓰린 어려움 모두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손 곧 토기장이의 손, 세공업자의 터치로 믿기에 은혜 인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멸망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닌 영생할 가치 있는 정금인생이 된 자들이 은혜 인간이다. 은혜 인간이 된 것 곧 썩어가는 진흙이 아니라 고귀한 정금이 된 것 자체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이다. 여기에다 아직은 재료로서의 정금이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정도까지 아름다워지는 그 꿈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욥23:10).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다.

혹여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신자들이 있다. 맞는 생각인 동시에 그릇된 기대이다. 어려움의 종류의 문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세상살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힌 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어려움은 모두 없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료로 삼아 그 어려움을 통해 무언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은혜 인간은 정금이 된 자신의 신분과 가치가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아직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리시고 즐거워하시는 결작이 되려는 꿈과 소망이 내 심령과 기도와 삶의 몸부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생각해야 한다.

성경에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꿈은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였다.

그 설계도가 어떻게 실재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착공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었다. 어려움도 그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정금 같은 요셉에게 주신 완성품에 대한 꿈이었다. 정금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공정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세공업자의 손에 그저 맡기면 되는 것이고 재료 입장에서선 견뎌 내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까다롭고 견디기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제련의 과정 속에 있는 정금에게는 그 중심에 심장처럼 뛰고 있는 제작자가 보여준 설계도이다. 그것은 꿈이며 소망이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다.



은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은혜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나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게 Encounter 되면 그 어려움을 맞이
Welcome해야 한다(약1:2). 피하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거나 열등하거나 자책하면 안 된다.

여전히 정금이다. 아니 정금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다. 실수와 실패의 염료가 생산라인을
통과하는 나에게 뿌려지고 있다고 해서 정금이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 착색된 그 색은 나의 최종 빛깔이 아니다.
방수든 방열이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해 뿌려진 고마운
도료일 뿐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상관 없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만이 책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사람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정금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모든 정금이
모든 공정을 통해 결국 완성되는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완전하신 주님처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빌4:4-5).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 고백이 소개되어 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보다 더 큰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별히 죽이려 쫓는 자가 한 나라의 왕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만드셨다. 디딜 곳 없는 험한 자리에서도 넘어지거나 실족치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 싸울 전사로 훈련시켜 주셨다. 수금과 비파 그리고 양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낫쇠 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군사가 되었다. 이 어려움에는 나를 멸망케 하는 목적이 일점도 없다. 나를 위대한 사람 되게 하는 목적만이 있다. 죽이려는 자들의 손이 나를 잡고 만드는 손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더욱 존귀한 자로 완성시키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찬양한다 (22:34-36, 50)’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 인생이 되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길이 되어 정금
 인생을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 가는 동안은
 어려움이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여행 계획서대로 위대한 인생의 바다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여 은혜 인간은 보고 있는 꿈과
 겪고 있는 어려움 사이에 괴리를 느끼지 못한다.

보고 있는 꿈은 되어 가고 있는 나를 통해 현실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히12:6, 8,
11-13)’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은 정금을 조금도 해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한
결작품이 되는 일에 도움을 줄 뿐이다. 이 사실을 알기에
은혜 인간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금됨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정금처럼 살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은혜 인간 DNA

행함으로 살지 말고 됴으로 살라

꼬마들에게 물어 본다. ‘커서 뭘이 되고 싶니?’ 아이들은 선생님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제각각 답을 한다. 그러나 누구도 다 큰 어른들에게 뭘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혹여 물어 본다 해도 이미 다 흘러간 인생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뭘 또 되려고 하나 싶어서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아이들에게는 뭘이 되고 싶은지 물어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꼬마들은 크면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혼도 내고 숙제도 내 주고… 꼬마들에게 무언가가 된다는 말은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다. ‘커서 뭘 하면서 살고 싶니?’ 이 질문이 그 애들에게는 딱이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다르다. ‘지금껏 무얼 하면서 살아왔는가?’는 ‘그 고생과 그 수고를 하면서 무엇이 되려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뭐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행동하고 살아왔는가?’ 어른들에게 무언가가 된다는 말은 나의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 나는 결국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고통스럽다. 사는 것이 행복하곤 거리가 멀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뭐든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창3:16-17, 19).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있어야만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만(약2:14), 사실 인생살이라는 것이
수고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구원은커녕 지금의
목숨도 연명하기 힘든 것이다.

작고한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유행시킨 말이 있다.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까요!’ 그 시절 연예인들 정치인들
평범한 서민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뭔가 한 번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추억처럼 떠오른다.
단지 큰 성공뿐만 아니라 그저 하루를 평범히 살기
위해서도 뭔가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며 행동해야 한다.
죽도록 살아야 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게으름은 악마도 죄로 여기는 악습이라고 했지만, 그런
게으름 하고는 거리가 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쉽과 평안한 심정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회사에서도 바쁘고 집에서도 바쁘다. 이상한 삶이
진행되고 있다. 정말 정신이 없다.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소위 군대축구라고 하는 종류의 경기 진행만이 남았다.
공이 어디를 가는지 운동장 안에만 있으면 상관없다.

그저 몸뚱이를 움직여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 주면 된다.

고유가 시대라고 하지만 움직여야 밥 벌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의 도로는 지금도 주차장이다. 시속 270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차가 시속 10으로 거북이가 되더라도 그 차 안에 몸을 싣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미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반성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치가 되었다.

기본이 사치품이 되고 부수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었다. 있어야만 하는 것은 없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위해 피땀 흘리며 애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의 됄이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됨’은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이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토록 고통으로 행동하셨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토록 극단적으로 행동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됨의 문제가 다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은혜 인간은
됨을 축복으로 확보한 인생들이다. 되려고 애쓰고 기쓰고
살지 않는다. 평안과 확신, 안전함과 샘솟는 기쁨이 있다.

세상살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뭔가 되려고 평생의 노력을
쏟기 때문이다.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영생하는 천국의 유업을 소유한 아들,
딸이 되어 있는 인생들이다. 살며 행동하는 이유는 됨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함일 뿐이다. 불안과 걱정,
불만과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수고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이 바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성취와 성공을 한 사람도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힘들어한다. 직선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인생은
곡선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이 됨의
축복을 확보한 은혜 인간들의 삶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저 구원의 산으로 올라간다’ 목적의 산을 오르는 방법은 곡선으로 굽이굽이 위를 향해 오르는 것밖에 없다. 아래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직선으로 뭔가를 위해 애쓰며 기쓰며 바쁘게 정신없이 행동하며 살고 있다. 방향성이 없다. 단회적인 성공, 일시적인 성취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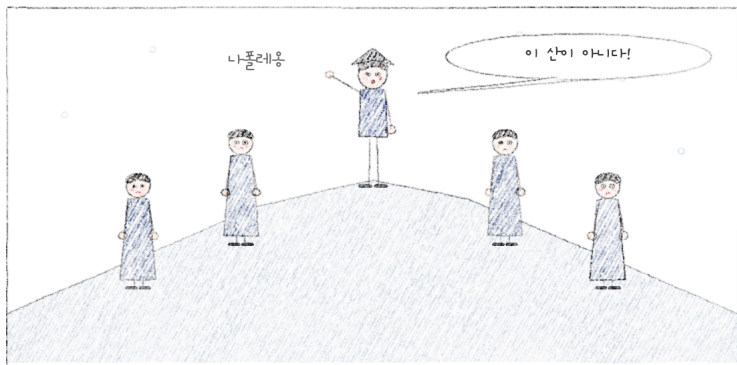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곡선을 그릴 때마다 직선보다 느리고 아프고 형편없는 듯한 시절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위를 향해 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변화된 됴됨이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 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은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움직임의 종류를 선택할 순 있는 것이다.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바람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공상이다.



잘 되다가 안 되는 듯한 어려운 시절에 은혜 인간은
절대로 생각해야 한다. 일이 안 되는 것이지 나의
됨됨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뭔가 보여
주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나를 확인하고 그러고 다시
일어나 확신과 감사로 이전 보다 더한 열정과 창조
능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됨은 행함보다 언제나 강력한 힘이다. 됨은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행함은 확보된 방향이 확실할 때 허망하지
않은 것이다. 흔히들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나폴레옹이 수만의 군사를 흑한 속에서 산 정상으로
이끌었다. 이런 고생과 수고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됐구나!’하는 군사들에게 나폴레옹이 외친다. ‘이 산이 아니다!’



뭍은 방향의 축복이다. 죄악으로 타락한 그래서 그 운명의 방향이 영원한 지옥이었던 우리네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뭍의 권세를 지니고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며 살게 된 것이다. 70, 80 평생을 온갖 수고와 노력으로 살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삶의 행보가 오직 직선들의 복잡한 충돌이라면 그 인생은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헛되고 또 헛된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나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고 살았는가?’

결국 남는 것은 ‘내가 평생을 통해 누가 되었는가?’ 곧 ‘나의 됨’이지 내가 이런 고생하고 저런 성공하고 뭐 이런 행동 더미가 아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을 강조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약2:24).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약2:21)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라고 주장한다. 아들까지 바치는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다(롬4:1-3).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됨’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들이 평생을 통해 행하며 살아야 하는 ‘된 자들의 구별되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천둥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번개 맞아 죽을 일이 없다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겁이 나고 두려워 떤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말은 죽음의 소리 소문에도 떨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죽음의 문제도 영생으로 해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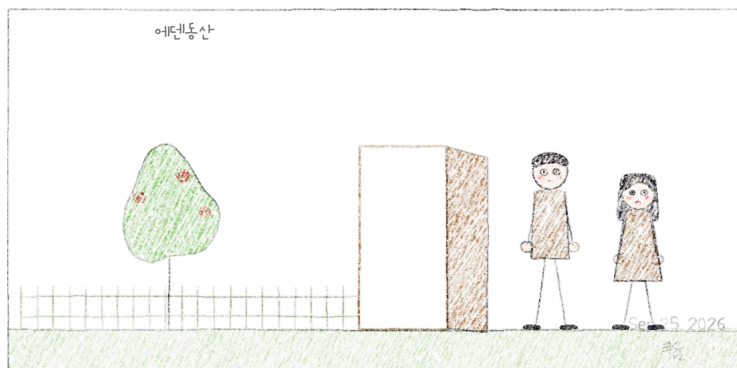
하물며 살면서 굶이굶이 실패와 무능력의 고갯길을 힘없이 걷는 그 순간이라도 사는 것을 겁내서는 안 된다. 죽음도 해결 받은 그런 인생이 된 사람들이 사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은혜 인간들이다.

후기

성경의 인간학

성경의 인간학Biblical Anthropology은 기나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점정리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라!’는 모든 것을 행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에 마음을 돌린다. 불순종이라는 죄는
관계에서의 죄인지라 명령한 자와 받은 자 사이는 예전의
상태가 될 수 없었다. 불순종을 행한 인간은 불순종을
당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올바른 때만 살 수 있는
낙원에서 추방 당하게 된다.



이때부터 인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족속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의 족속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바 서로에 대한 강포와 포악이다. 자비와 용서가 없이 폭력으로 운영되는 인생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노아라는 인물의 시대에 그 악취 나는 꽃이 만개했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창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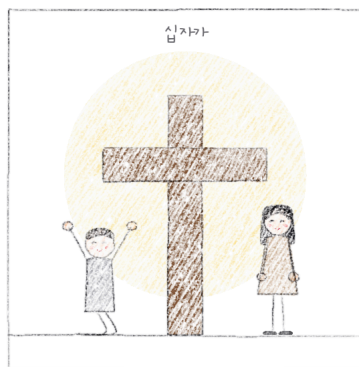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었는가’ 하시며 마음 상해하셨다(창6:6).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대홍수가 있었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땅 위에서 사라졌다.

이 참담한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창8:21)’라고 결심하신다. 하나님의 결심은 노아와 맺은 약속으로 진행된다. ‘이제로 땅의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축복도 하셨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 족속에게 주시는 생육과 번성 그리고 다스림의 복이었다. 그러나 낙원에서와 같이 이 축복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조건이 있었다. 피로 상징되는 생명에 대한 경고였다. 생명을 죽이지 말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경고는 동일한 내용인 것이다. 하나님의 대인류 정책은 이 시점부터 이미 이해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의 해결로 방향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창8:21)’

이러한 중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성 없는 존재로 전락해 간다. 무지개를 보아도 그 어떤 약속도 생각나지 않는 시대가 계속되어 갔다. 인간은 결국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학이다. 인간은 약속 이행자가 아니다. 인간은 종류와 정도의 문제이지 약속을 파행하는 자들이다. 인간은 의무의 부여와 준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리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에덴동산에서 먹은 과실은 다른 아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선과 악을 아는 마음 곧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양심대로만 살아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여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확신하는 자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살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두루뭉술 그저 사랑과 자비의 분위기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확과 정밀한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인생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양심대로 살려고 남달리 발버둥 치고 산 사람에게도 이 질문은 실제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너는 누구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래서 너는 너의 삶은 무엇인가? 선한 삶인가? 악도 행한 삶인가?’

사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인간비극의 시나리오가 실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라-하지 마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의 상태 곧 악의 상태에서 알게 된 선과 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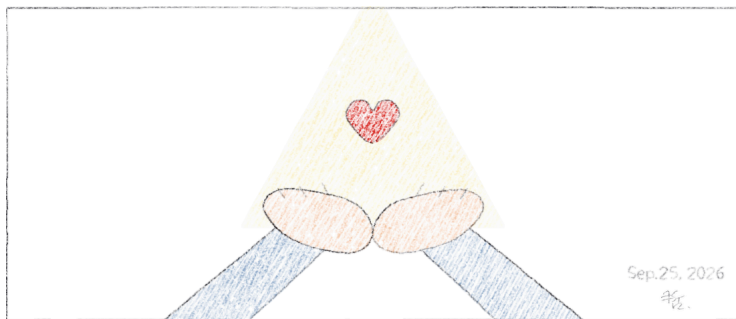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들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로 살았던 에덴 동산 밖,
곧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선과
악은 알되 악이 현실인 세상이다.

성경이 보는 인간은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언제나 악을 품고 행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밖에서 시작된 삶이기 때문이다.
이러하기에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도 이 통탄할 인간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 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약속을 하는 것, 약속을 받는 것,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약속을 성취하는 것 심지어 약속의 불이행 시
약속되었던 생명의 처단까지 모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 완전히 계시는 예수께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의 혜택을 인간에게
100%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 역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야말로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에 있어서 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완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함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자들이 감당해야 할 유일한 의무이다.

인간은 용서하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악된 존재이며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을 살리기를 갈망하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는 인생을 동시에 두 번 살게 해 준다.

이 땅에 속하여 사나

하늘의 인생을 행하고 누린다.

인간은 용서하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악된 존재이며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을 살리기를 갈망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은혜 인간

Homo Gratia